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(12.19일)

□ **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**를 시작하겠습니다.

□ 오늘 회의에서는 **향후 3년간**
우리나라 공급망 정책의 **기본 틀**이 될
「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」을 심의합니다.

□ **미국 新정부** 출범이후 전개될 美-中 **전략경쟁**의
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**보호무역주의**로 인한
글로벌 공급망 **불확실성**이 **고조**되고 있고,

○ 최근의 **어려운 국내 상황**으로 **정부의 대비가 부족**하다는
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

□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**공급망안정화법** 시행과
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으로 **제도적 기반을**
이미 마련하였고,

○ 오늘 **기본계획**을 **수립**함으로써 **글로벌 공급망 리스크**라는
격랑을 헤쳐 나갈 **대응체계를 완비**하고자 합니다.

○ **철저히 대비**해온 만큼, 한치의 **흔들림 없이**
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[기본계획 주요과제]

□ 정부는 주요 **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**를 **50% 이하**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,

○ **'27년까지 "55조원 + α"의 금융·재정**을 투입하여 우리 경제의 **공급망 안정성**을 **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.**

□ 먼저, 경제안보품목의 **국내생산**을 **확대**하겠습니다.

○ **고위험 품목**의 **국내생산** 등을 **지원**하기 위한 **"(가칭)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"**을 **도입**하겠습니다.

- 이를 통해 **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**가 예상되나 **경제성 열위**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**국내생산**과 **구매**가 **촉진**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경제안보품목 생산 **유턴·외투·지투기업** 등에 대한 **금융·재정·세제지원**도 확대하겠습니다.

□ 핵심광물의 **안정적 확보**는 반도체·배터리 등 **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**를 위한 선결과제입니다.

○ 이를 위해 **민간이 주도**하고 **공공이 참여**하는 **핵심광물 투자**를 **활성화**하겠습니다.

- **「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」**를 **신설**하여 사업발굴과 정보제공·컨설팅은 물론 대출·투자·보증 등 **필요자금**을 **패키지 지원**하겠습니다.

- **공급망기금**도 **민·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**에
매년 500억원 수준을 **장기·지속투자하여**
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.

□ **비축**은 **공급망 위기시**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
최후의 보루입니다.

○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오던
공공비축의 **통합관리체계를 구축**하여
주요 경제안보품목의 **비축**을 **체계적으로 확대**하겠습니다.

- 산업·민생·국방 등 **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,**
주요 품목별 **비축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.**

- **타소비축**과 **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**를 위한
유인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최근 **주요국간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** 및
기업 유치 경쟁에서 알 수 있듯이,
핵심기술의 **경쟁력 강화**와 **보호**는 **경제안보**의 **필수 근간**입니다.

○ **공급망**과 **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**
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**기술유출 방지**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,
법집행 강화와 **국제공조** 등을 통해
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.

[기본계획 추진기반]

□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**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**로 하여 **범부처·민관협력 거버넌스**를 **통해 추진**하고,

○ **'공급망안정화기금'**과 **'소부장 특별회계'**의 **유기적 연계**를 통해 **뒷받침**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**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** 속에서 **가용한 모든 수단**을 활용하여 **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**에 **대비**해 나가겠습니다.

□ **마침 지난 17일** 국회 기재위에서 **내년도 10조원 규모**의 **공급망기금 보증채권 발행동의안**을 **통과**시켜주셨습니다.

○ 국민들이 먹고 사는 **경제문제**에 있어서만큼은 **모두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**를 **모아** 어려운 시기를 **함께 헤쳐나가기**를 당부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